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 기제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The Roles of Public Libraries as a Construction Mechanism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이 승 민 (Seungmin Lee)*

초 록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 및 이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들 자본이 재생산하는 사회적 계급의 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자본, 문화자본 및 공공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계급일수록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인한 사회적 계급화의 해소에는 부분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평등한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public library use on the construction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and the close of social classes reproduction through the survey targeting public library users. As a result, the use of public libraries positively affects the construction of both social and cultural capital. In contrast, it partially addresses the problems in social classes reproduction because the social classes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and income tend to use public libraries more often. In order to take a role of and contribute to equal construction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public libraries need to be public places for open and social interac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public libraries to improve their roles to allow community members to access and utilize various cultural resources.

키워드: 사회자본, 문화자본, 공공도서관, 사회적 계급 재생산

Social Capital, Cultural Capital, Public Library, Social Classes Reproduction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ableman@cau.ac.kr)
논문접수일자 : 2018년 11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12월 2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139-160,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4.139]

1. 서론

현재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은 경제자본,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과 함께 사회를 지탱하는 주된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자본은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계급을 재생산하는 기제로서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던 주제였으나, 1990년대 이후 다른 제 자본의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자본으로서 그 의미가 재고찰되고 있다.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은 각기 다른 개념으로 정립되어 적용되어 왔지만, 이들은 분리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자본은 사람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내재된 상호간의 신뢰, 사회적 규범 등을 통해 각 개인의 혹은 사회의 집단적인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생산적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자본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되고 있는 문화적 능력,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양식 등을 축적함으로써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고유한 특성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학력, 경제력 등 전통적인 자본의 형성 요인들이 이들 자본의 형성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사회자본을 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적, 교육적 지위가 사회자본의 계급화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자본의 계급화가 문화자본의 형성에도 영향

을 미쳐, 사회자본의 계급화와 문화자본의 계급화가 결국은 사회적 계급을 재생산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활용이 중심이 되는 현재의 사회 환경에서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 및 정보공유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정보접근성 및 정보 활용 기회가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환경이 정착되면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독립적인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회적, 정보적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 각각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자본을 상호 연계, 강화, 증대시키는데 있어서도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 혹은 이들 사이의 상호연계 등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의 영향을 논하는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 및 이들 사이의 연계에 있어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평등한 정보 이용을 대명제

로 하는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계급화를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자본의 개념 및 유형

2.1.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의 개념은 Bourdieu와 Coleman 등에 의해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여러 학문 분야에 적용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창기, 박종관 2005, 192). 하지만 그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해 사회자본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으로 진화해 왔으며, 적용되는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측면에서 설명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Bourdieu(1985, 248)는 사회자본을 상호간의 인식을 통해서 형성되는 제도화된 사회적 관계 혹은 그 관계에 내재된 잠재적 자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Fukuyama(1995, 26)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통해 형성되는 커뮤니티의 잠재적 능력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Putnam(1995, 67)은 사회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뢰,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등 사회의 집단적인 특성을 사회자본으로 정의하였으며, Woolcock(1998, 153)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 신뢰, 호혜성의 규범으로 사회자본을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은 개인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지만, 공

통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내재된 신뢰, 협력, 호혜에 기반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Krishna 2007, 942),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같이 생산적 행위를 증진시키며 이로인한 결과를 가져오는 생산적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규환, 남상우 2008, 212; Coleman 1988, 102).

하지만 사회자본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되고 접근할 수 있는 자본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가족,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사회자본 생성의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박희봉 2009, 3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사회자본은 사회적 혹은 경제적 지위 등과 같이 차이가 존재하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교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박성우 2014, 202).

2.1.2 사회자본의 유형

사회자본 형성의 근간이 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혹은 관계의 정도에 따라 강한 유대관계와 약한 유대관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Granovetter 1973, 1361), 이는 다시 교량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 연결형 사회자본(linking social capital)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는 사회자본의 유형을 구분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며, 사람들 사이의 유대관계의 강도 및 그 적용방식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자본은 개인이 형성하는 자본 중심의 개인적 사회자본, 사회적 집단 측면에 중점을 두는 집합적 사회자본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개인적 사회자본은 특정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자본의 유형으로,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 함축되어 있는 사회자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집합적 사회자본은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의 총집합으로,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뢰, 호혜성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을 결합하여 생산되는 사회자본의 형태를 의미한다(Putnam 1995, 66). 집합적 사회자본 역시 개인이 축적하는 사회자본에 기반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집합적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에서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관계에 속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집합적 사회자본은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회활동에의 참여 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자본이 사회 또는 국가 수준에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자본은 고려하는 측면 혹은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서 내부적 사회자본과 외부적 사회자본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각각의 사회자본 유형들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사회활동을 통해 축적되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호혜성, 규범,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Kahne and Bailey 1999, 322). 또한, 사회자본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고 축적되며, 이러한 이유로 사회자본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자본, 물적자본 등 다른 사회적 자본들과 복합적으로 연

계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2 문화자본의 개념 및 유형

2.2.1 문화자본의 개념

문화자본은 Bourdieu가 주창한 개념으로, 근본적으로는 사회의 계급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새로운 자본으로 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자본과 마찬가지로, 문화자본이 사회현상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자본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자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반화된 방식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으로 진화해왔다.

일반적으로는 문화유산이 문화자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이기홍 2005, 3), 예술작품 혹은 대중문화 자체를 문화자본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서순복 2010, 147). 하지만 문화자본을 처음 이론적으로 개념화한 Bourdieu(1977)에 따르면, 사회의 지배계급 혹은 상위계급의 문화활동, 문화적 취향,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 등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종의 자원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문화자본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자본의 개념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적용되면서 그 의미가 계속해서 다변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De Graaf, De Graaf, and Kraaykamp(2000, 93)는 연극, 그림, 문학 등 사회의 지배적 혹은 공식적인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얻게 되는 고급 취향 혹은 경험을 문화자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Sullivan(2001)은 사

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친숙함 및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문화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이들 정의들은 모두 사회의 주도적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문화자본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문화자본은 사회의 지배계급이 소유하여 집단적으로 유지되는 문화적 자산이나 행동, 습관, 태도(Katsills and Rubinson 1990, 270; DiMaggio and Mohr 1995, 1237),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인식되는 상류층의 문화적 표시(De Graaf, De Graaf, and Kraakamp 2000, 93; Eitle and Eitle 2002, 126) 등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이들 정의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화자본을 바라보고 있으며, 사회의 주도적인 지배계급이 이끌어가고 있는 문화적인 행동, 취향, 태도 등에 대한 인식 혹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문화자본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는 물적 자본, 경제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전유될 수 있으며, 문화를 소유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계급에게 실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이를 상속할 수 있는 자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Bourdieu 1985). 따라서 문화자본은 현재의 사회 환경에서 사회적 계급을 재생산할 수 있는 간접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Kalmijin and Kraaykamp 1996, 32).

반면, 이러한 계급 재생산 이론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DiMaggio(1982)는 대중매체의 발전 및 이로 인한 대중문화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문화적인 요소는 사회적인 계급과는 무관하게 향유되고 소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급격

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경제적 계급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를 보다 손쉽게 영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따라서 문화활동에의 편리한 참여는 사회적, 경제적 상위계급보다는 오히려 하위계급에서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강현아, 우석진, 강현주 2012, 28).

이렇게 문화자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이 제안된 초창기부터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문화자본은 사람들의 문화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생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요인들이 문화자본의 형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2 문화자본의 유형

문화자본은 적용되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구분 방식으로는 Bourdieu(1986)가 제기한 세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체화된 문화자본(embodied cultural capital)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체득되어 사람들의 신체와 정신에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성향으로,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품위, 몸짓, 외모, 자세, 표정, 식습관, 사용 어휘, 교양 등을 지칭한다. 둘째, 객체화된 문화자본(objectified cultural capital)은 문학작품, 미술작품, 문화유적, 악기, 건물 등 구체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문화자원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한 물리적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객체화된 문화자본의

범주에는 문화자원 자체로서의 의미 이외에도, 이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인지하고 활용, 향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셋째, 제도화된 문화자본(institutionalized cultural capital)은 사회의 제도화된 과정 혹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얻게 되는 문화적 능력으로서, 교육을 통해서 획득하는 졸업장, 학위, 자격증, 인증서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임고는 2012, 56).

이외에도 문화자본은 그 형성되는 방식에 따라 상속된 문화자본과 획득된 문화자본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상속된 문화자본은 주로 가정 내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가족구성원들 사이에 상속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습득하여 지속하게 되는 성향을 의미하며, 획득된 문화자본은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질을 의미한다(Bourdieu 1995, 143; 류향근 2004, 11-12).

이와 같이, 문화자본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문화자본은 사회자본, 경제자본 등 다른 자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문화자본의 형성에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교육과정이 수반되고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문화자원, 문화정보의 습득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2.3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관계

Granovetter(1985)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와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여러 유형의 사회적 자본들이 전달, 축적, 소멸하는 기반으로

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문화자본과 관련해서는,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자본이 형성되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자본의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Portes 199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은 모두 개인의 사회활동에의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 상호 호혜 등을 통해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무형의 자본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자본의 형성과 문화자본의 형성이 개인적, 사회적 차원 모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요인 중 신뢰,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 등은 문화자본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요한 공통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에는 공통된 요인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은 상호 연계될수록 개인적, 사회적 이익은 증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은 서로 연관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형성된다는 사회적 이론 또한 제기되어 왔다. 이는 문화 이동론(cultural mobility theory)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어 온 경제적 수준, 학력, 가족의 배경 등은 각 개인이 보유한 문화자본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며, 개인의 문화자본 형성에 있어서는 개인의 경제적인 자본보다는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참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DiMaggio 1982, 199). 특히

문화 이동론에서는 하위계급의 경우에 자녀들의 교육에 보다 높은 열의를 보이기 때문에 학력 및 교육수준이 낮은 계급일수록 문화자본과 계급 이동 사이의 상관관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이동론은 사람들이 문화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진화된 정보환경에서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통적인 경제자본과는 달리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형성을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사회의 상위계급보다는 하위계급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백병부 2012),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인한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은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본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정보접근성이 보편화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보기관, 문화기관 측면에서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2.4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형성과 공공도서관

현재의 사회 환경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 혹은 문화활동이 가족 중심이나 개인의 독립적인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사회의 정보적, 문화적 기관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정보기

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도서관은 정보적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보환경의 급속한 진화와 함께 공공도서관은 정보를 매개로 하여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및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 혹은 문화 프로그램은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보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각 개인의 사회자본을 연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Johnson 2012, 54),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사회자본이 평등하게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적 계급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문화자원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주고, 이것이 사람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참여 및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은 문화자원을 보유하거나 문화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의 하위계급에게도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역량을 강화할 수 있

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통해서 문화 수준 및 문화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문화자본 형성의 기관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측면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과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사람들의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 형성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행태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으로 인한 사회적 계급 재생산을 해소하는데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평등한 생성 및 사회적 자본의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변수 설정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무형의 자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세부적인 유형들을 중심으로, 이들 각각의 자본들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공도서관 이용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을 논하기 위해

서는 우선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인구통계적 특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전통적으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Putnam(1995)의 집합적 사회자본 이론에 근거하여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에 중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국한되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배제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을 한정하였다.

사회자본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회자본이 아닌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사회자본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유형을 커뮤니티 구성원 사이의 신뢰, 사회적 규범, 사회활동에 대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정도로 설정하였다. 문화자본 측면에서는 객체화, 제도화,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문화자본의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세부적인 측면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즉, 객체화된 문화자본은 문화자원의 보유 여부 및 온라인 문화자원의 활용 여부로 구성하였으며,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문화예술 교육 경험, 문화작품의 생산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체화된 문화자본은 문화예술에 대한 친숙도 및 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 여부로 구성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친숙도 및 지식 정도를 확인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사람들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항목의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유형을 구분한 연구(DiMaggio 1982; Kahne and Bailey 1999; Portes 1998; Putnam 1995) 및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상호 관계에 관한 연구(Johnson 2012)들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 요인, 공공도서관 이용 각각의 주요 특성들을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인구통계적 분석,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 문화자본 형성 요인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설문조사는 20대 이상의 공공도서관 일반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2018년 8월 10일~14일까지의 5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총 300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구통계적 특성,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와 사회자본, 문화자본 사이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 신뢰도 검증에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 한 결과, 총 20개 항목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25로 나타나,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 117명(39.0%), 여자 183명(61.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대는 30대가 106명(3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대졸이 158명(52.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설문 응답자의 연 평균 가계 수입은 대체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1〉 설문 항목 구성

구분	항목	문항 수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4
공공도서관 이용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	5
	공공도서관 이용 방식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공공도서관에 대한 문화적 인식도	
사회자본 형성 요인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5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도	
	사회적 호혜에 대한 인식도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도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도	
문화자본 형성 요인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정도	6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도	
	문화자원 이용 방식	
	문화자원 소유 정도	
	문화예술 교육 경험	
문화자원 생산 정도		

〈표 2〉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117	39.0
	여성	183	61.0
계		300	100.0
연령	20대	89	29.7
	30대	106	35.3
	40대	68	22.7
	50대	30	10.0
	60대 이상	7	2.3
계		300	100.0
학력	고졸	57	19.0
	전문대졸	43	14.3
	대학 재학	29	9.7
	대졸	158	52.7
	석사	10	3.3
	박사 이상	3	1.0
계		300	100.0
연 평균 가계수입	2,000만원 이하	50	16.7
	2,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94	31.3
	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77	25.7
	6,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53	17.7
	8,000만원 이상	26	8.7
계		300	100.0

4. 분석 결과

4.1 인구통계적 특성과 사회자본 사이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통해 복합적으로 형성되며, 중점이 되는 요인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공통적인 요인들로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상호간에 형성되는 신뢰, 사회적 차원에서의 호혜적 활동,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도,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핵심적인 측면들을 집합적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요인들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배경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표 3〉 참조).

분석 결과,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요인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계급일수록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정도, 사람들 상호간의 신뢰 정도,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도,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호혜

〈표 3〉 인구통계적 특성과 사회자본 상관분석

		상관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사회적 네트워크	Pearson 상관	-.214**	.035	.119*	.123*
	유의확률 (양측)	.000	.543	.039	.034
	N	300	300	300	300
상호신뢰	Pearson 상관	-.121*	-.067	.128*	.207**
	유의확률 (양측)	.036	.250	.027	.000
	N	300	300	300	300
사회적 호혜	Pearson 상관	-.117*	-.089	-.082	-.138*
	유의확률 (양측)	.043	.126	.158	.016
	N	300	300	300	300
사회적 참여도	Pearson 상관	-.085	.091	.141*	.156**
	유의확률 (양측)	.141	.116	.015	.007
	N	300	300	300	300
사회적 규범	Pearson 상관	-.168**	.104	.140*	.222**
	유의확률 (양측)	.004	.073	.015	.000
	N	300	300	300	300

** : p<0.01, * : p<0.05

적인 활동 혹은 인식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계급일수록 호혜적인 활동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 = -.138, p < 0.05$).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자본의 형성 요인으로 인식되어 온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사회자본의 형성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을 통한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2 인구통계적 특성과 문화자본 사이의 상관관계

사회자본과 마찬가지로, 문화자본 역시 다양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형성되지만, 문화자본은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친숙도와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문화자본의 형성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문화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에 따라서 문화자본은 체화된 문화자본, 객관화된 문화자본, 제도화된 문화자본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이 개인의 문화자본에서 지니는 함의는 경제적 수준 혹은 정보활용 수준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문화자본의 형성 요인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대부분의 문화자본 형성 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 수준($r=.177, p<0.01$)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도($r=.243, p<0.01$) 등 체화된 문화자본의 보유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화된 문화자본으로 인식되는 문화예술 교육 경험($r=.275, p<0.01$), 문화작품을 생산하는 빈도($r=.135, p<0.05$) 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체화된 문화자본과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보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화된 문화자

본과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형성 및 유지에는 전통적인 요인인 교육과 소득수준이 모두 큰 영향으로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객체화된 문화자본의 측면에서는, 문화자본의 보유 여부 역시 교육수준($r=.228, p<0.01$), 소득수준($r=.128, p<0.0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객체화된 문화자본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과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문화자원 사이에는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람들의 학력 및 경제적인 수준은 문화자본의 형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형성에 오랜 시간

<표 4> 인구통계적 특성과 문화자본 상관분석

		상관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문화지식정도	Pearson 상관	-.043	.004	.177**	.173**
	유의확률 (양측)	.455	.948	.002	.003
	N	300	300	300	300
문화 인식도	Pearson 상관	-.053	-.018	.243**	.192**
	유의확률 (양측)	.360	.754	.000	.001
	N	300	300	300	300
온라인선호도	Pearson 상관	-.088	.030	.058	-.020
	유의확률 (양측)	.129	.601	.319	.730
	N	300	300	300	300
문화자원 보유	Pearson 상관	-.155**	-.065	.228**	.128*
	유의확률 (양측)	.007	.262	.000	.026
	N	300	300	300	300
문화교육경험	Pearson 상관	-.007	-.191**	.275**	.123*
	유의확률 (양측)	.905	.001	.000	.033
	N	300	300	300	300
문화작품 생산	Pearson 상관	-.074	-.117*	.135*	.129*
	유의확률 (양측)	.198	.043	.020	.025
	N	300	300	300	300

** . p<0.01, * . p<0.05

이 소요되는 체화된 문화자본이나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자본이 사회적 계급을 유지하거나 재생산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웹 환경의 정착에 따른 문화자본의 평등한 생성이라는 기존의 주장들과도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4.3 공공도서관 이용과 사회자본 사이의 상관관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은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무형의 자원을 보유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에는 사람들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등 전통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3〉 및 〈표 4〉 참조), 따라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은 현재까지도 사회적 계급 재생산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계급을 재생산하거나 경제자본으로 형성된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것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격차의 증대라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자본 보유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정

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정보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대부분의 사회자본 형성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도서관 이용빈도($r=.363, p<(0.01)$),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r=.466, p<(0.01)$),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도($r=.365, p<(0.01)$), 문화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도($r=.365, p<(0.01)$)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이용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는 사회자본 형성의 핵심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공공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요인들은 사람들 상호간의 신뢰 형성, 사회적 참여,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도 등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사람들의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회적 호혜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람들과의 교류가 배제된 개인적인 공공도서관 이용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호혜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공도

〈표 5〉 공공도서관 이용과 사회자본 형성 요인 사이의 상관분석

		상관관계				
		이용빈도	온라인 선호도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 유용성	문화적 유용성
사회적 네트워크	Pearson 상관	.363**	.109	.466**	.365**	.365**
	유의확률 (양측)	.000	.059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상호신뢰	Pearson 상관	.311**	.092	.368**	.363**	.391**
	유의확률 (양측)	.000	.113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사회적 호혜	Pearson 상관	.087	.141*	.116*	.118*	.114*
	유의확률 (양측)	.133	.014	.044	.042	.049
	N	300	300	300	300	300
사회적 참여도	Pearson 상관	.308**	.014	.325**	.412**	.316**
	유의확률 (양측)	.000	.811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사회적 규범	Pearson 상관	.409**	.020	.372**	.383**	.360**
	유의확률 (양측)	.000	.725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 . p<0.01, * . p<0.05

서관 프로그램 참여 등과 같이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공공도서관 이용은 사회적 호혜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r=.116, p<0.05$), 공공도서관이 개인적인 정보 활용 중심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할 때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온라인 자원에 대한 활용 방식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크게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온라인 방식과 직접 방문 기반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지는 대부분의 사회자본의 형성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식은 사

회적 호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온라인 방식을 통한 공공도서관 이용은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정보활동 및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공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제한된 범위의 정보 활용에 비해 보다 폭넓은 정보의 입수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적 호혜성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도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사람들의 집단적인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4 공공도서관 이용과 문화자본 사이의 상관관계

문화자본은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친

속도, 이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가정의 소득수준, 학력수준 등 전통적인 경제자본의 형성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문화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사회적, 집단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 및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자원을 소장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문화자본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

며,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웹 상의 문화자원 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자본 형성 요인, 특히 체화된 문화자본과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모든 요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문화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도는 문화자본 형성의 대부분의 요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공도서관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를 높이게 되고, 이것이 문화자원에 대한 노출 및 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체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체화된 문화자

<표 6> 공공도서관 이용과 문화자본 형성 요인 사이의 상관분석

		상관관계				
		이용빈도	온라인 선호도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 유용성	문화적 유용성
문화지식정도	Pearson 상관	.366**	.006	.272**	.373**	.321**
	유의확률 (양측)	.000	.919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문화 인식도	Pearson 상관	.332**	-.024	.309**	.326**	.303**
	유의확률 (양측)	.000	.685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온라인선호도	Pearson 상관	.086	.395**	.194**	.032	.071
	유의확률 (양측)	.137	.000	.001	.584	.221
	N	300	300	300	300	300
문화자원 보유	Pearson 상관	.382**	.203**	.556**	.308**	.213**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문화교육경험	Pearson 상관	.343**	.022	.470**	.294**	.201**
	유의확률 (양측)	.000	.704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문화작품 생산	Pearson 상관	.280**	.140*	.515**	.302**	.204**
	유의확률 (양측)	.000	.015	.000	.000	.000
	N	300	300	300	300	300

** . p<0.01, * . p<0.05

본은 단기간 동안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역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도는 체화된 문화자본의 형성과 연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통한 문화자원への 노출은 문화에 대한 인식도 향상으로 이어져 문화와 관련된 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인 환경의 조성을 통해 공공도서관은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평등하고 보편적인 접근은 문화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화자원 소유 정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결국 개인화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 문화자본의 형성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방식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선호하는 집단에서는 문화자본의 소유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r=.203, p<0.01$), 이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형태의 문화자원 이용 이외에도 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문화생활의 범위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온라인 기반의 문화자원 소유 및 접근이 증대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국, 문화자본의 형성 및 강화에는 현재와 같은 웹 기반의 환경 정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제도화된 문화자본 중 문화작품의 생산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화작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웹을 통해 편리하게 입수할 수 있는 환경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 역시 디지털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이 문화자본의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객체화된 문화자본 중 온라인 형태의 문화자원에 대한 선호도는 공공도서관 이용빈도,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도와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디지털 형태의 문화자원을 많이 이용할수록 공공도서관 대신 웹을 선호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웹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지는 경향과도 연관되어 있다.

4.5 인구통계적 특성과 공공도서관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에는 소득수준, 학력수준 등과 같은 전통적인 요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 혹은 학력수준 등에 따라 계급화되어 형성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매개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이용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의 전반적인 요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사람들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에 따른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다소간 해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이용 역시 개인적인 배경과 인식도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인구통계적 특성들이 공공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사람들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과 연계시켜 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적 특성과 공공도서관 이용 사이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표 7〉 참조).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들의 학력수준($r=.313, p<0.01$)과 소득수준($r=.245, p<0.01$)은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혹은 강좌에의 참여 역시 학력수준($r=.174, p<0.01$)과 소득수준($r=.135, p<0.01$)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인식도와 관련해서는, 학력수준($r=.117, p<0.05$)과 소득수준($r=.162, p<0.05$)이 높은 계급일수록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을 형성하

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에 대한 문화적 인식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계급일수록 공공도서관이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r=.191, p<0.01$), 학력수준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를 매개로 하여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계급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 역시 높게 나타나, 공공도서관의 이용 자체에서는 전통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문화적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개인의 학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학력 수준이 문화자본으로 인한 사회적 계급을 재생산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7〉 인구통계적 특성과 공공도서관 이용 사이의 상관분석

		상관관계			
		성별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
이용빈도	Pearson 상관	-.096	.037	.313**	.245**
	유의확률 (양측)	.095	.520	.000	.000
	N	300	300	300	300
온라인 선호도	Pearson 상관	-.109	.054	-.027	-.056
	유의확률 (양측)	.059	.347	.642	.338
	N	300	300	300	300
프로그램 참여	Pearson 상관	-.127*	.015	.174**	.135*
	유의확률 (양측)	.028	.793	.002	.020
	N	300	300	300	300
사회적 유용성	Pearson 상관	-.131*	.032	.117*	.162**
	유의확률 (양측)	.023	.580	.042	.005
	N	300	300	300	300
문화적 유용성	Pearson 상관	-.146*	.064	.044	.191**
	유의확률 (양측)	.011	.272	.443	.001
	N	300	300	300	300

** . p<0.01, * . p<0.0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통적인 정보의 허브로서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커뮤니티 교류의 장으로 점차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사회적 계급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문화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은 학력과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문화자본의 형성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문화자본 이용이 소득수준이나 학력수준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문화자원 및 문화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정보환경은 문화자본의 평등한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현재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들 무형의 자본을 소유함으로써 사회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은 학력수준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자본 형성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오히려 사회의 계급을 재생산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계급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해 주는 공

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가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화적, 정보적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형성 및 이들 사이의 연계에 있어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계급화를 해소할 수 있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등 전통적인 자본 형성 요인은 사람들의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형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자본을 통한 사회적 계급의 재생산이라는 기존의 현상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형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체화된 문화자본이나 제도화된 문화자본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웹 환경의 정착에 따른 문화자본의 평등한 생성이라는 기존의 주장들과도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각 개인의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보유 정도가 사회의 계급화를 재생산하는 기제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자본과 문화자본 형성에서의 격차 및 이를 통한 사회적 계급화의 해소에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이용은 대부분의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 형성 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요인들은 사람들 상호간의 신뢰 형성, 사회적 참여,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도 등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사람들의 사회자본 형성에 전반적

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사회적 호혜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빈도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인적인 목적에서의 공공도서관 이용은 사회적 호혜성의 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등과 같이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공공도서관 이용은 사회적 호혜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공공도서관이 개인적인 정보활용 중심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기능할 때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화자본 측면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체화된 문화자본과 같은 개인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도화된 문화자본과 같은 집단적인 문화자본의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체화된 문화자본과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이 문화자원의 소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문화활동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온라인 기반의 문화자원 활용과는 큰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웹 상에서 다양한 문화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정보환경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객체화된 문화자본의 형성에는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이용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공도서관을 보다 자주 이용하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경제자본 형성 요인들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문화적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개인의 학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학력 수준이 문화자본으로 인한 사회적 계급을 재생산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학력수준 및 소득수준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주된 형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요인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과정과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상황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이 이들 자본을 형성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학력수준 및 소득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계급화의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평등한 형성 및 사회적 계급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관심이 공유될 수 있는 개방된 커뮤니티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력, 경제력 등과 같은 전통적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자본 보유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각 개인의 사회자본을 연결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으로, 그리고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평등하게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 기관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아, 우석진, 강현주. 2012. 가정외 보호아동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0(5): 25-38.
- 류향곤. 2004. 『문화자본, 학업성취, 교육열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사회전공.
- 박성우. 2014. 공공도서관의 사회자본 측정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97-215.
- 박희봉. 2009.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서울: 조명문화사.
- 백병부. 2012.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계층별 보유 양상의 종단적 비교 분석 및 보상 기제 연구』. 대전: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 서순복. 2010.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45-162.
- 이규환, 남상우. 2008. 사회적 자본 개념요소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 207-228.
- 이기흥. 2005. 한국 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25(3): 1-21.
- 이창기, 박종관. 2005. 도시지역 사회자본의 실태와 증진에 관한 연구: 대전,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191-210.
- 임고은. 2012. 『문화자본이 사회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 Bourdieu, P. 1985. "The Form of Capital" In John G. Richardson (ed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241-258.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De Graaf, N. D., P. M. De Graaf, and G. Kraaykamp. 2000. "Parental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Netherlands: A Refinement of the Cultural Capital Perspective." *Sociology of Education*, 73: 92-111.
- DiMaggio, P.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189-201.
- DiMaggio, P. and J. Mohr. 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6): 1231-1261.
- Eitle, T. M. and D. J. Eitle. 2002. "Race, Cultural Capital, and the Educational Effects of

- Participation in Sports.” *Sociology of Education*, 75(2): 123-146.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perty*. New York: Free Press.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80.
- Johnson, C. A. 2012. “How Do Public Libraries Create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Interactions between Library Staff and Patro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 52-62.
- Kahne, J. and K. Bailey. 1999.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Youth Development: The Case of ‘I Have a Dream’ Program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1(3): 321-343.
- Kalmijn, M. and G. Kraaykamp. 1996. “Race, Cultural Capital and Schooling: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69: 22-34.
- Katsills, J. and R. Rubinson. 1990. “Cultural Capital, Student Achievement and Educational Reprodu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270-279.
- Krichna, Anirudh. 2007. “How Does Social Capital Grow? A Seven-Year Study of Villages in India.” *Journal of Politics*, 69(4): 941-956.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 Sullivan, A. 2001.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Sociology*, 35(4): 893-912.
- Woolcock, M.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 Net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Byungbu. 201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ssession Condition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by Position Level and Reward Mechanism*. Final Report.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Kang, Hyun Ah, Seok Jin Woo, and Hyun Ju Kang. 2012. “The Impacts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in Out-of-Home Car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5): 25-38.

- Lee, Chang-Ki and Jong-Gwan Park. 2005. "A Study on the Promotion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Social Capital in Cities Area."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6(2): 191-210.
- Lee, Gi Hong. 2005. "Cultur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of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5(3): 1-21.
- Lee, Kyu-Hwan and Sang-Woo Nam. 2008. "A Study on the Connectedness of the Conceptual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in Cheongju Cit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0(1): 207-228.
- Lim, Ko-Eun.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Cultural Capital on Social Studies Achievement*. M.A. thesis.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Hee-Bong. 2009. *Social Capital: From Distrust to Trust,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Seoul: CM Press.
- Park, Seong-Woo. 2014.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Created in Public Libraries: Focused on Public libraries in Jeonnam-Provi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97-215.
- Ryu, Hyang-Gon. 2004. *The Relations among Cultural Capital, Academic Achievement, and Educational Aspiration*. M.A. thesis. Major in Educational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eo, Sunbok.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In Proceedings of the Seoul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145-162.